

나주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자리매김

국토부 발표 성과평가·정책지원 용역 결과 사업체·여성고용 증가율 등 전국 최고 수준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가 전국 혁신도시 중 최근 5년 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가 가장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지원'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에서 나주 혁신 도시는 사업체, 종사자, 여성고용, 상용 노동자 수 증가율이 전국 10개 혁신 도시 중 가장 높았다.

해당 연구는 참여정부 이후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미래발전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나주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성장동력 부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주혁신도시의 총 사업체 수는 2012년 5,626개에서 2017년 7,633개로 2,007개(35.7%) 늘어나며 전국 혁신도시 평균 증가율 13.8%를 훌쩍 웃도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나주 혁신도시 다음으로는 충북(29.1%)이 뒤를 이었고 부산(8.4%)이 5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업체 증가는 고용 창출 성과로 이어졌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최근 5년 간 이뤄진 고용증가율 또한 가장 높았다.

지난 2012년 나주 혁신도시 총 고용 수는 2만8,696명에서 2017년 4만6,381명으로 63.6%(1만8,135명) 증가하며 이

역시 전국 평균 증가율 25%를 크게 웃돌았다.

고용증가율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인력의 고용 증가율이다.

나주 혁신도시 사업체의 여성 고용 수는 2012년 1만2,403명에서 5년 뒤 1만8,910명으로 52.5%(6,507명) 크게 뛰며 증가율이 전국 탑 순위를 기록했다.

종사자 수에 기준한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 유관업종 관련 종사자의 집적도 수준도 약 4.6배가 증가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 이전에 비해 기반산업이 현재 기반산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나주 혁신도시는 고용의 질, 즉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증가와 직결되는 상용 노동자 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나주 혁신도시의 상용 노동자 수는 2012년 1만8,528명에서 2017년 3만2,447명으로 75.1%(1만3,919명)나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혁신성장 부문 종합결과에 대해 "혁신기반

과 모두 지역의 혁신역량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며 "나주 혁신도시는 고용증가 및 안정적 일자리 증가가 뚜렷하고 지식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나주시가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은 총 391개로 이중 혁신산단, 혁신도시 클러스터 등 유치 기업은 278개였고 광주 등에 유치한 기업은 113개였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이전인 2012년부터 5년 간 증가한 혁신도시 기업 수는 1,570개, 일자리 수는 1만3,556명으로 집계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성과는 나주 혁신도시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빛가람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시즌2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고영태·김한상·김한원·김한태·이종기 선생 장흥 순국선열의 날 독립유공자 포상

장흥의 독립운동가 발굴 및 기록 작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장흥문화원이 올해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5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3명이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는 성과를 낳았다.

이번에 독립유공자 추서를 받은 장흥의 독립운동가들은 고영태(1917~1988, 안양면 모령), 김한상(1897~1978, 용산면 원등), 김한원(1893~1982, 용산면 원등), 김한태(1903~1980, 용산면 원등), 이종기 선생(1908~1953, 용산면 점정)이다.

고영태 선생은 1934년 독립운동 당시 용산면 운주마을에 거주하며 고희석선생(당시 26세, 아직 독립유공자 미포상)과 함께 활동했다.

김한상, 김한원, 김한태 선생은 김두환 선생(1990년 독립유공자 포상)과 함께 활동했다.

이종기 선생은 용산면 점정리에서 유재성 선생(당시 31세, 아직 독립유공자 미



고영태 선생

포상)과 활동했다.

이들은 1933년 사회주의 독립운동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에 가입해, 농민조합과 농민학회를 통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34년 1월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장흥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장흥 독립운동가들을 선양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선양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장흥 해동사 안중근 의사와 장흥의 독립지사들이 함께 선양되고 이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신원과 후손을 확인하기 위해 각 읍면에서 제적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문화원은 장흥문화공작소와 협력해 장흥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사를 기록하는 일도 모색하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흥사회복지관, 657가구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보급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이 화재 사고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등 657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를 교체해줘 호응을 얻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때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를 통해 응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으로 응급 상황이 전달돼 24시간 구호 조치가 이뤄지는 서비스이다.

장흥군은 올해 기존 장비 154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503대의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급하는 응급 장비는 기존 장비에서 업그레이드된 태블릿 PC 형태로 응급 상황 때 119 응급 통화, 안부 확인, 동영상 콘텐츠, 낙상 감지 등 스마트 기능이 추가됐다.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장흥 종합사회복지관 응급관리요원 및 생활 지원사에게 응급 상황이 전달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상시 휴대폰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함평군 나산면 모정마을 숲.

/함평군 제공

함평 나산면 모정마을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함평군 나산면 모정마을숲이 최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산림청은 해마다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을 대상으

로 산림문화 가치 조사·평가를 실시해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함평 모정마을숲은 나산면 나산리 일원 1만586㎡ 규모의 마을숲이다.

조성 속중 시절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

문난 죽산 안 씨에게 효자각이 하사된 뒤 마을 주민들이 그에 걸맞은 숲을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주변 나산수변공원, 영동공원, 장승대공원 등과도 잘 어우러져 예술·문화적 가치는 물론 친환경 관광자원으로서도 체계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계군의 설명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화순 내년 예산 6,123억 편성

민생 안정·미래 성장 동력 확보 사업 대폭 반영

화순군이 6,123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화순군이 최근 화순군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본 예산 5,726억보다 396억(6.9%)이 증가했다.

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염두에 두고 해당 분야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따뜻한 포용복지 사회 구축에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 1,336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39억원), 생계 급여(98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활동비(144억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28억원), 농민수당(54억원), 경로당 급식도우미(5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195억여 원,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400억여 원을 반영해 차세대 생물의약·백신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 사업 135억원,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 70억원,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 37억원,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15억원, 질량동물 기반 세토치로제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45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래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위한 푸드플랜 추진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 50억여원 등 농업 분야 예산 730억여원을 반영했다.

관광객 500만 시대 개막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기반 확충에 184억원, 안전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재난방재 분야에 215억 원을 배정했다. 1000원 버스 및 맘 편한 100원 택시 운영 예산 11억여 원 등 교통복지 예산도 편성했다.

구 군수는 지난 19일 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농업 선도·부자농촌 실현 ▲신성장산업 발굴 및 신속한 경제회복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포용복지 ▲관광산업 다변화로 관광객 500만 시대 기반 조성 등을 내년 균형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화순군의회는 12월 7일부터 상임위 예비사,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화순=서호령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군 어린이의회, 군의회 견학

장흥군과 장흥군의회는 최근 장흥군 어린이의회 소속 어린이 의원들이 장흥군의회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의회는 2018년 구성돼 10명의 어린이의원을 위촉하고 3개 상임위원회(참여·안전·문화위원회)로 나뉘어 운영중이다.

군의회 견학은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과의 간담회 및 장흥군 제2차

정례회를 방청해 군민의 대표로서 의사결정 및 안전 처리 등 지방의회의 진행 과정을 지켜봤다.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은 "어린이의회 소속 의원들의 군 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의 소중한 경험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화순 마을활동가 발굴·역량 강화

화순군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동가 발굴과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섰다.

공동체 지원 중간조직인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는 최근 두 번째 마을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마을활동가 10명은 12월까지 8회에 걸쳐 이론, 실무, 현장 교육에 참여해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운다.

교육은 그림으로 마을자원 연결하기, 마을자원의 SNS 홍보 활용과 영상 만들기, 에너지 마을, 식물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론·실습 교육과 고충커피체험농장을 찾아 마을자원 활용과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경험한다.

/화순=서호령 기자



봉산·대덕면 주민자치회, 사랑의 꾸러미 전달

담양군 봉산면 주민자치회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갑염병 취약계층과 마을회관에 구급함 세트 80개를 전하고 대덕면 주민자치회를 홀로 어르신 및 저소득층 70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등을 담은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했다.

봉산주민자치회는 지역 어르신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직접 마스크를 포함한 필수 구급약품을 예산해 마을회관에 전달했다.

대덕면 주민자치회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스크, 고등어, 과일 등이 담긴 사랑의 꾸러미 전달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담양=정일민 기자